

광주시, 수해 대비 6개 하천 대대적 정비

광주시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우선 홍수량에 비해 하천폭이 좁고 제방이 부실해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북구 3곳(서방천, 운정천, 용전천) ▲남구 1곳(대촌천) ▲광산구 2곳(운수천, 황룡강) 등 총 6개의 지방하천 14.73km 구간을 정비한다.

이번 정비사업은 통수단면 결정 등 종합적인 하천개수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하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계

북구 3곳 · 남구 1곳 · 광산구 2곳 등 14.73km

70억원 투입 올해 하반기부터 개수 공사 돌입

용역이 8월까지 마무리되면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2020년까지 총 399억원을 투입해 치수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구 풍암동~벽진동 일대 서창천은 '고향의 강 조성 공사'로 추진된다. 서창천은 논농사를 짓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치수 안전성 확보와

편의시설 구축 등의 요구가 많았다. 이같은 요구를 반영, 2014년 시작된 고향의 강 조성공사는 2.1km 구간에 442억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교량, 자연형 호안 등 시설물, 만드 리 힌터 등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서창천은 재해 예방 기능은 물론 향토문화를 접목한 지역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찬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홍수 등의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생태계 회복을 통한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하천정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완료된 광주천은 복원사업 전후 수생태계 복원 효과와 건강성 회복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수질정화시설 사후 모니터링용역을 실시한다.

서은홍 기자

동구, 휠체어 무상대여 서비스 눈길

광주 동구가 등록 장애인 및 보행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휠체어 무상대여서비스'를 시작해 눈길을 끈다.

휠체어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 질병과 사고로 일시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주민에게 필수품이지만 적지 않은 구입비용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컸다.

이에 동구는 휠체어 26대를 구입해 각 동별로 2대씩 비치했다. 휠체어 대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휠체어는 4주간 대여되며 1회 연장으로 최대 6주간 이용할 수 있다.

서구 상록도서관, 지식+감성공간 역할 톡톡

개관 3주년을 맞은 광주 서구 상록도서관이 지식+감성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서구는 국·시비 등 55억 여원을 확보하여 지난 2015년 5월 상록도서관을 건립했다.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옆에 들어선 상록도서관은 연면적 1천 722㎡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졌다.

무엇보다 상록도서관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면서 편안하게 책도 읽을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의 인테리어가 눈길을 끈다.

하루 평균 이용객만 3백여명에 이르는 등 아이들에게는 독서와 놀이 공간이자 어른들에게는 평생학습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것.

남구, 설 앞두고 축산물 이력제 등 점검한다

광주 남구는 28일 "관내 축산물 전문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2월 9일까지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물의 생산과 도축, 가공, 유통 등을 단계별로 점검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식탁에 오르게 하고 축산물 이력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과 축산물 유통 전문판매업,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 및 식육판매업 영업, 수입 쇠고기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등이다.

북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광주 북구가 지역경제 근간을 이루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지원 및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에 나선다.

북구는 올해 의무구매 목표액을 전년 대비 4.1% 증액된 7억 1800만원으로 설정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의무구매 공시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당초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목표액인 6억 9천만원을 훌쩍 넘어선 8억 7100만원의 실적을 올려 목표 대비 126% 초과 달성하였다.

'사회적경제제품 의무구매 공시제'는 수익계약 가능한 재화나 용역·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판로 확대를 통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광산구 청소년문화의집, 출판파티 개최

광주 광산구 청소년문화의집 '하호센터'가 진행한 인문학 수업을 수료한 시민들이 10명이 책 '시'를 펴내 28일 저녁 7시 아호센터에서 출판파티를 가졌다.

'삶을 위한 삶: 마을 인문학'을 주제로 김천은 아호센터 교육실장이 진행한 수업은 2016년 10월부터 약 1년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매주 한 차례 모여 학습하고 토론했다. 지적 민속에 머물거나, 교양 수준에 그치지 않음을 학습의 목표로 잡았다.

'시'는 시 44편과 고전문학 에세이 등을 20여 쪽에 담았다. 모두 수업과 토론으로 얻은 각자의 사유를 표현한 작품이다. 출판파티에서는 '시'에 작품을 올린 창작자가 시와 에세이를 낭독했다.

임형택 기자



양향자 출판기념회 성료

오는 6월 지방선거 광주시장 도전 본격 행보 돌입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양향자 최고위원이 28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도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석현 전 국회의장의 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영선 기동민 김병기, 유승희, 이수혁 국회의원과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장, 정경래, 전순옥, 최민희 전 국회의원 외에도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 김필식 동신대학교 총장 등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장, 시·구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에 출간한 '꿈 너머 꿈을 향해 날자, 한자'에서 '치열한 기술경쟁이 벌어진 글로벌 현장의 한복판에서 얻은 30여 년간의 경험과 밑바닥 노동자에서 연구원이라는 리더가 되기까지의 삶,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낸 역량을

서은홍 기자

이해 광주를 위해 쓰리는 운명과도 같은 사명을 받들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광주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흥-화성-평택-이산을 연결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었는데 이를 연결하는 산업 단지를 만든다면 우리 '광주'가 최적지라고 생각한다. 광주가 반도체 산업을 끌어 올릴수만 있다면 일자리와 소득은 물론 도시 위상도 급격히 높아질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라고 광주 비전을 피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행사 메시지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반도체라고 이야기 하며 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광주가 스마트 자동차 전장산업에 주목해 산업을 일으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광주의 청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하나하나 풀어 놓았다.

농어촌공 전남, 청렴·안전관리 총력

공사감독 등 현장 참여자 합동 토론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석근)는 24, 25일 양일간 현장 참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건설 현장 무재해 달성과 청렴한 사업관리를 위한 순회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사현장의 청렴과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개최됐으며 △청렴 토크 △2018년 예산집행 △건설현장 품질확보 △재해예방방안 및 안전관리 등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본부장은 "열린 본부장실과 핫라인을 운영해 현장의 어려움을 대화와 소통으로 함께 해결하자"며 "청렴이냐말로 시공의 가장 밑거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지역본부는 실무중심의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전남도청과 협업해 국책사업의 성공적 시행 및 공사현장 청렴과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은홍 기자

김기태 전남도의원 '도내 옥외

행사 안전관리 조례' 대표 발의

"생명·재산 보호...안전 사회 기여"

전남도내 소규모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기틀이 마련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열린 도의회 제81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서 '전라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전라남도 내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 유지를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공연법'에서는 1천명 이상 공연일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법'은 관람객 3천명 이상 지역축

제인 경우에 안전관리와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람객 1천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련 법규가 없어 이를 보완해 관람객 500명 이상 3천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다.

김기태 의원은 "지난 2014년 관교 테크노밸리 환풍기 붕괴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들을 공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정했다"며 "이번 계기로 그동안 관계법령 미비로 사실상 방치되었던 소규모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해남 · 나주 · 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전문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소득증여
- 기업 진단
- 가장 대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 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탁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